

최인아

최인아의 작업은 이야기의 발전 구조와 같이 회화적 요소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상호 교차되고 충돌하며 변화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서사적 추상이며 잠정적 경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시각적 향해의 과정이다.

작가는 불연속적이고 추상적이며 분산된 시공간에 대한 파편적인 기억들을 하나의 화면에 여러 차례 중첩시켜 올리는 작업을 한다. 유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작가는 자연스럽게 끝없이 발생하는 변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작가는 세계를 이루는 수많은 순간과 찰나들의 중첩이 만들어가는 과정적 상태에 주목했으며, 그것은 곧 최인아의 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그 중 최근의 작업들은 순간과 변화, 경계에 대한 탐구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풍경들로부터 상상된 서사에 기초한다.

작가는 먼저, 일상, 기억, 신화적 이야기 등의 경험되거나 상상된 서사의 파편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화면에 흘려 보낸다. 물감을 칠하거나 에어브러쉬를 뿌리는 등의 자유로운 회화적 행위, 중첩되었다가 지워지기를 반복하는 면과 선들은 불완전성과 우연, 실수를 동반하는 모순적인 관계를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뒤섞여 나타나는 양가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기하학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들이나 투명함과 불투명함, 평면성과 환영, 한색과 난색은 화면 안에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의도한 것과 즉흥적인 것, 우연적인 것의 충돌과 결합이 이뤄낸 유동적인 회화적 과정을 통해 수많은 잠정적 순간들이 화면 위에 켜켜이 쌓여가고 추상적인 서사가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서사와 감각은 회화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직관적이었던 것은 서서히 구상화 되고 구체화된다.

-Gallery JJ-

Like archeologists excavate relics, my paintings are constructed by selectively storing the images 'discovered' on the picture plane during the painting process. A painting emerges as the fragments of both experienced and imagined narratives, from everyday life to history and myth, sensualize into color, form, and texture. The numerous tentative moments created by the process that lies between improvisation and intention are layered on the picture plane as time passes. Moreover, the original elements, such as shape, color, and composition disappear and reappear over time, and what used to be intuitive gradually becomes concrete. Like a nonlinear narrative structure of a story, pictorial elements metamorphose through contradictory interactions within the 'field of infinite possibility.' Thus, my work is an unpredictable visual navigation crossing over the flexible boundaries between abstraction and figuration; and surface and illusion. -Artist statement-

b.1990

- 2018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 2013 **시카고 예술대학교 (SAIC)** 순수미술학과 졸업

Selected Exhibitions

- 2022 <생동하는 틈_PATCH>,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 <It Doesn't Matter>, 옴스큐라, 서울
- 2021 <Deep Ground>, 레스빠스71, 서울
- 2020 <미끄러운 밤>, 상업화랑, 서울
- <망막의 소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송갤러리, 서울
- 2019 <Form>, CICA, 김포
- 2018 <All Good Things Must Die>, 스페이스니트, 서울
- <Portable Device>, 더블스페이스, 서울
- 2017 <페르미 거품>, 17717, 서울
- 2016 <Le Paris Coree>, 관훈갤러리, 서울



최인아 Inah Choe, Shallow Water, 72.7x65cm, oil on canvas, 2023